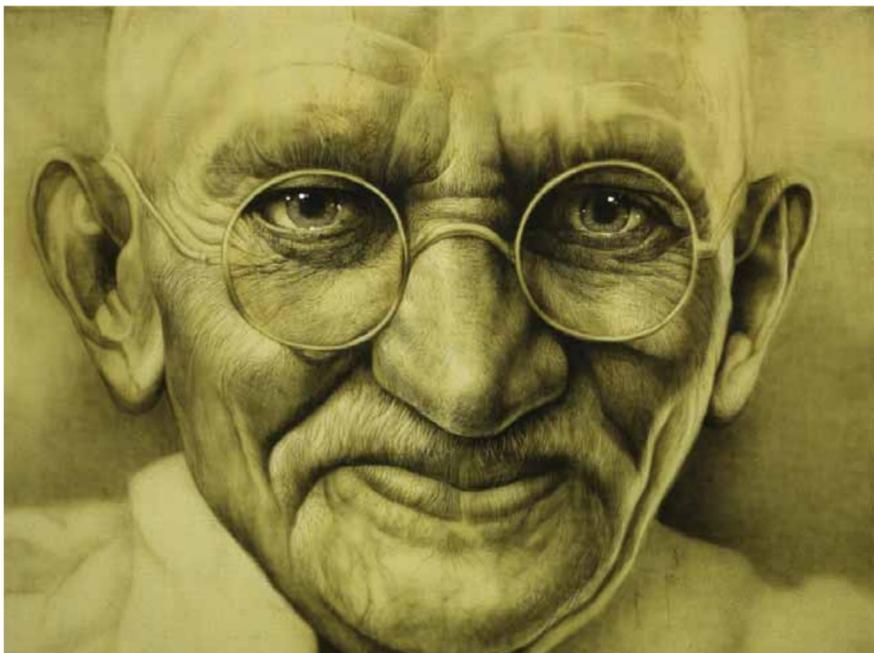


# 살아 숨쉬는 그림...하이퍼리얼리즘 실감나네



이정호 작 '자두-풍요'



강형구 작 '간디'

## 여수 '예술마루' 개관 4주년 특별전

국내 대표 극사실주의 작가 20여명 참여

6월 26일까지 작품 95점 선봬

강형구 5월 7일, 최수양 6월 4일

선착순 50명 '작가와와의 만남' 행사도 진행

손등에 보이는 실핏줄, 하얀 당분이 묻어나오는 자두, 놓치지 쉬운 소재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리얼리즘을 넘어선 하이퍼리얼리즘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술마루(이하 예술마루)가 개관 4주년을 맞아 특별전 '살아있는 그림'을 6월26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극사실주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하이퍼리얼리즘' 작품을 선보인다. 국내 대표 극사실주의작가 강형구, 이석주를 비롯한 20여명이 참여해 사진보다 더 사실같은 작품 95점을 출품했다.

'하이퍼리얼리즘'은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해 팝아트, 추상표현주의와 더불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미술 장르 중 하나다. 미국적 팝아트의 강력한 영향 아래 발전했으나 사물 본질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정확한 묘사가 특색이다.

인물 초상을 주로 작업하는 강형구 작가는 200호가 넘는 대형 작품들을 통해 하이퍼리얼리즘 정수를 보여준다.

대표 작품 '먼로'는 미국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1926~1962)를 캔버스에 옮긴 작품이다. 가로·세로 2.5×1.2m 크기 작품은 머리카락 한 올, 손가락마디 주름 하나까지 정교하게 묘사했다. 먼로가 담배를 권 채 미소 띤 얼굴로 관객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모습은 도발적이기까지 하다. 강 작가는 누구나 아는 유명인이지만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모델을 대상으로 자신의 해석을 더해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또다른 대표작 '초상'(2.6×2m)은 본인이 등장한다. 먼로와 마찬가지로 무표정한 얼굴은 관객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 자칫 거북함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강 작가가 관객과 소통하는 특유의 방식이다.

최수양 작가의 조소작품 'girl'은 얼핏보면 진짜 소녀가 앉아있는 듯한 작각이 든다. 민머리, 누드 등 관람객들이 깜짝 놀란만한 모습으로 표현했다. 찢어진 눈, 허무한 눈빛 등 소녀에게서는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다.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춰 아름다워져야만 하는 현대 여성들의 애환이 느껴진다.

풍경도 전시된다. '고요한 호수'(안정환)는 수면을 덮은 연잎, 호수를 둘러싼 숲, 물결에 일렁이는 태양빛이 인상적이다. 'Another Landscape-Audi'(장재욱)는 먹으로 그린 작품이다. 외국거리에 주차된 아우디 차량으로 화폭을 가득 채웠다. 차량 표면에 비친 가로수 등 먹으로만 광택을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풍선껌을 불다 터져 코에 묻은 상황을 유쾌하게 묘사한 강강훈 작가의 '모던 보이', 반짝반짝 점액질이 돋보이는 김영성 '달팽이' 등을 만날 수 있다.

5월7일 강형구, 6월4일 최수양 작가가 참여하는 '작가와와의 만남'도 진행한다. 강 작가는 극사실주의 회화, 최 작가는 조각에 대해 90분간 들려준다. 선착순 50명 접수.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www.yeulmaru.org) 참고.

입장료 일반 5000원, 접수·문의 061-808-70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여수=김정화기자 chkim@



안정환 작 '고요한 호수'

## 나지수 작가 '연결관계'展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24일까지

나지수 작가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24일까지 '연결관계'전을 개최한다. '2016 청년신인작가' 공모에 선정된 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화 30여점을 선보인다.

나씨는 분홍, 초록 등 밝은색 바탕에 흑백으로 그린 사람 나체를 반복적으로 등장시켰다. 뒷모습만 보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사람들은 누군가를 붙잡고 있거나 웅크리고 있다.

작품 '관계연결'은 사람 수백명이 서로 다리나 허리를 붙잡으며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 'Mint'와 'Pink'는 각각 사람들이 허공을 부유하고 있는 느낌이다. 나씨는 입지도, 가리지도 않은 존재들을 통해 '관계'와 '연결'을 이야기하며 현대사회를 풍자했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떠도는 존재로 빗냈다.

나씨는 "작품을 통해 현대인에게 필요한 소통과 관계, 연결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Pink'

나씨는 전남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2013 광주시 미술대전 특선, 2014 한국화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383-007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우리가족 연주실력 뽐내 보세요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가족연주단 모집

'우리가족 연주실력 뽐내 보세요'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73회 행복나눔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이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연주단을 모집한다.

가족연주단은 전문적인 연주자가 아니더라도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할머니·할아버지, 고모, 삼촌 등 친인척도 함께 참여 가능하다.

최소 2인 이상부터 신청해야하며 연

주시간은 약 10분이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악기 외에도 성악, 양상물 등 장르는 제한이 없다.

모집기간은 오는 15일 오후 1시까지로,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giasia.org)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해 연주영상자료(5분 이내 분량)와 함께 이메일(lacasia@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공연 일시는 5월9일 오후 7시30분이다.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실황 상영

광주문화재단 영상화 사업...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은 서울예술의전당 공연영상화 사업 '삭온스크린(SAC on Screen)' 4번째 작품으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Spirit of Beethoven' 영상을 상영한다. 8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이번 공연은 2014년도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193회 정기연주회 실황을 담은 영상으로 상임지휘자 임현정의 지휘 아래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함께 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난 2011년 창단 16주년을 맞아 재단법인으로 탈바꿈하면서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로 새롭게 출발했다.

김다솔은 2014년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내한공연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협연한 바 있다. 관람료 무료. 선착순 100명 예약. 문의 062-670-79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채널A 종합뉴스**

가장 빨리,  
매일 저녁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박상규 보도본부 부본부장      김설혜 보도본부 기자